

우선 담배를 피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 몸에는 더 좋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점 남성에서 여성으로, 어른에서 청소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흡연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회사라든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중요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 고등학생들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 길을 걸을 때 담배를 피면서 걷는 학생을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18세 미만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지키지 않는 가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담배를 피면 답답한 마음이 후련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배를 지나치게 피면 몸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는 40대의 남성의 경우,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기관지라든가 여러 신체의 일부가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흡연을 했던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임신부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치명적이어서 정상인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아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항상 보고 무의식중에 아버지의 담배 피는 행동을 흉내냅니다.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요즘은 흡연자중에서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보통 기호식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할수 없지만 저의 생각은 흡연자의 경우 적당히 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